

韓國 合板工業의 現況과 展望*1

朴英珠*2

The Situation and Prospect of Korea Plywood Industry*1

Young-Ju Park*2

1. 序 言

196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목재공업의 성장은 관련산업의 부진 등으로 말미암아 대단히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으나 1960대 초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목재공업의 성장은 합판수출에 의존해 왔다고 할 정도로 합판산업은 성숙기를 맞았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수요부진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합판산업은 수출산업에서 내수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91년에 수입합판의 국내점유율이 50%에 달하는 등 합판수입량이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성장기인 성장기인 1960년대 이래로 30여년만에 우리나라는 합판 주요 수출국에서 합판수입국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듯 변천해 온 우리의 합판공업은 새로운 경영환경의 도전을 극복하고 금후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응전략 수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고는 최근 합판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경영과제를 통하여 합판공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나아가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合板工業의 當面課題 및 對應戰略

2.1 원자재 확보

'92년 6월 리우정상회담 이후 확산되고 있는 환경보호운동의 영향으로 열대림 벌채가 크게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주요 원목공급지역인 동남아시아

아(특히, 말레이시아)의 원목생산 감축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판용 원목의 주요 수입국인 말레이시아는 '92년 9월이후 원목생산을 줄이는 한편, 합판생산의 확대를 위해 원목수출량을 대폭 삭감하였다.

원자재의 구득난, 원목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국내 합판산업은 국제 경쟁력유지는 물론 국민 주생활의 기본소재인 합판의 적정가격의 안정공급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제부터 국내 합판산업의 미래와 국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저가이며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침엽수(국산재 포함)의 활용을 적극 고려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침엽수는 NewZealand, Chile 등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인공림이 조성되어 있고 금후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점 등이 유망해 보이며 현재 Russia의 Siberia지역에서 추진중인 북양재개발 사업도 원목의 안정적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의 침엽수자원도 현재 간벌단계에 와 있어 그 활용이 기대되고 있으나 국산재의 생산비용이 높아 이에 대한 원가절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선진 목재공업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산재의 개발은 경제성, 효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요 단일수종에 대하여 식목하고 그 수종을 중심으로 육림방법을 개발해 나아가 산업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수종 활용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국산재

*1 이 원고는 1993년 7월 2일 인천 이견산업에서 개최될 1993년 한국목재공학회 하계총회 초청강연 요약문임.

*2 이견산업 주식회사 회장

의 경제성을 높여나감으로써 생산비용을 낮춰나가는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산재개발을 위한 임도 및 Yard의 개척, 수송 및 유통체계의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의 감소, 생산비용의 절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다.

또한 열대재로서 이용의 정도가 미약한 Africa 재 뿐만 아니라 남미재의 용도개발도 고려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2. 2 기술개발투자

대경·우량재의 생산감소와 합판용 원자재의 감소에 따라 침엽수 등을 포함한 소경목 이용기술과 폐재를 이용한 재생보드류의 생산기술이 최근 목재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합판공업협회는 최근 침엽수합판 개발생산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침엽수합판 생산시설 투자와 관련하여 침엽수합판 1개 Line설치에 79억원 규모(연리 5.5%, 3년거치 7년 상환의 재정투자금융)의 정부지원을 요청중에 있는 등 국내 합판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활동중에 있다.

또한 국제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판산업도 기술집약 산업으로 기술개발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제품의 부가가치화, 품질고급화를 병행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3 관세의 탄력 운영

현행 수입합판에 대한 조정관세는 15%로서 그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예정이며 이에 관한 적용시한의 연장을 현재 정부에 건의중에 있다.

6mm이상의 합판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주중합판으로 국내 합판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현행대로 관세율을 적용하며, 6mm미만의 합판은 국내생산이 거의 없고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주수출국인 인도네시아(APKINDO)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예방과 국내 가구산업의 국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기본관세율 수준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남양재 원목의 수입관세도 일본, 대만 등의 세계적 추세로 볼때 원목수입관세를 철폐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을 정부에 요청중에 있다.

2. 4 환경보호운동의 전개

목재공업은 목재이용을 통하여 인간에게 유익함을 줌과 동시에 적절한 보전이라는 당면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Logging시 벌채과정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산림훼손 및 생태계 파괴 등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Plantation(식목)분야에 대해서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강구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 원목생산국가인 Malaysia, Png, Solomon Island 등에 선진 식림기술 등의 지원을 통하여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보전기술의 지도에 힘써나가야 하겠다.

21세기 중반까지 해외자원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우리나라의 실정으로는 폐자원을 이용하는 자원절약형 Recycling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해 나가야 하겠다.

한편, 합판 등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수준도 꽤 미흡한 단계에 있으며 합판을 단순한 기본소재로만 인식하는 등 제품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위한 적극적 홍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結 論

대내적으로 목재공업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원자재 확보를 비롯하여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국제 경쟁력제고의 과제를 갖게 되었다.

원자재확보는 국산재를 포함한 침엽수 자원의 확보 및 이용극대화를 통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침엽수를 포함한 소경목의 절삭기술로부터 제품의 고급화를 위한 마케팅 노력 등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한 인도차이나 반도 주변의 인구밀집 지역에서 향후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목재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의 원자재 공급 pattern을 볼때 국내 기업이 해외의 자원공급 source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의 열대림 생산에 한계가 오고 있고 향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은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부가가치를 높여 가공하는 이른바 제품고급화 전략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 경쟁력제고는 각 경영주체들의 총화에 의하여 달성된다고 보며 그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사업의욕을 진척시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세의 탄력적 운영을 비롯한 개발투자지원, 국산재개발에 따르는 정책마련등의 지원을, 기업은 경영합리화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강화를, 국민은 목재산업에 대한 인식과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높아지는 환경보전의 큰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목재공업의 선진화를 통한 주거문화의 향상과 국민복지의 증진이 우리 목재인들의 사명이며 보람인 것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통한 국가의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

의 목재공업도 새롭게 변신해 나갈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나라가 2000년대의 모범적인 산림국가로 발전해 나가도록 산·학·관의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朴英珠 會長 略歷

- 생년월일 1941년 1월 29일생
1963. 3.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75. 12. 광명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1978. 3. 이견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1988. 4. (주)이견창호시스템 대표이사
1989. 3. 이견자원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1993. 2~ 이견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현)